전쟁군대없는 세계로!!

非戰 환경과 反차별

NO. 5

목 차

국가와 전쟁[1)]

무까이 꼬오(向井 孝)[2)]

오늘날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은 국민이라는 개념으로 분류되고, 등록되고, 지배되고 있다. 우리들은 이러한 표딱지 없이, 국가의 영역 밖으로 한 발자욱도 나갈 수 없고 국내에서도 갖가지 장애에 부딪친다. 게다가 우리들 자신은 이러한 개념을 거의 선천적, 운명적으로 받아들이고 스스로도 그렇게 부르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국민이라는 개념을 성립시키고 있는 근거는 그러한 집단 안에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놀라 마땅한 일이다. 예를 들면, 똑같은 인류의 구분 개념인 인종은 그러한 분류근거로 생물학이 있다. 또, 민족이라는 개념은 문화인류학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나 '국민'은 국가를 그 근거로 해서 성립되는데도 불구하고 국가는 그 구성자인 국민의 내실성과 전혀 무관한 것으로, 완전히 지배자와의 관계에서 외재적 명칭으로 성립할 뿐이다.

국가가 국가일 수 있는 것은 우선 타국과의 관계 – 기타국가로부터의 승인 – 에서다. 그 기본요건으로,

(1) 일정한 영토를 갖는다
(2) 영토내에서 생활하고 있는 인간에 대해서 타권력의 간섭을 불허한다
(3) 그리고 지배하는 정치권력이 존재한다

는 데 불과하다. 다시 말해서, 국가는 단순한 하나의 정치사회적 결합형태에 불과하거나 또는 거대한 정치단체일뿐이다.

고대, 중세에서 국가라고 부르던 것에서부터 근대법치국가에 이르기까지 국가는 항상 지배계급의 권력기구 그 자체로 존재했다. 국가의 주권을 장악한 권력자의 지배와 이익을 위해서 우선 존재했다. 평상시, 국민의 보호자로 자처하고 있다가 최후에는 지배자들은 자기들 보신을

---

1) 무까이 꼬오(向井 孝)의 『폭력론 노트 – 비폭력직접행동이란 무엇인가(黑. 2002. 12)』중 4장을 번역한 것임
2) 일본의 WRI(War Resisters' International, 전쟁저항자인터내셔날) Japan 대표, 평화운동가, 시인

위해서 국가조차 팔아먹고 국민을 배신해서 도주해버린 많은 역사는 무엇보다도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

권력의 본질로서의 폭력과 그 가면

부르조아국가의 지양이라는 논리를 가지고 그것을 단순히 뒤집은 것에 불과한 프롤레타리아국가라는 개념이 있었다. 국가의 지배권력이 부르조아에서 프롤레타리아로 이행한다. 그것은 노예제국가에서 봉건국가로, 그리고 다시 자본주의국가로 옮겨가는 마지막것으로 나타난다고 했다. 그러나 20세기 사회주의국가의 행방이 현실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거기서는 권력의 최대강화가 실현되었고 더구나 그것이 인민의 국가, 인민의 권력이라는 명분을 이유로 반역자는 가차없이 처단했다. 실로 그것은 국가체제로서 완벽한 침묵과 죽음의 체제를 만들어냄으로써 스스로 붕괴의 길을 걸었다. 그리고 우리들이 그러한 국가에 조금이라도 맞서려고 할 때 금방 나타나는 것은 거대한 폭력장치를 뒤에 둔 모든 권력적 규제이며 억압이었다. 이러한 것은 그것이 국가일 때는 아무리 자유나 인권을 내걸고 민주주의를 외쳐도 그 어느 국가도 다르지 않다. 내면적 강제, 이른바 사회질서로서의 심리적 정신적 지배하에 더욱 완벽한 민주주의라는 의사(擬似)비폭력체제를 성립시키면서 법의 이름으로 폭력을 행사한다. 그렇지만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다. 국가는 항상 권익을 주장하면서 권익의 유지와 확대를 위해서 크고 작은 분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는 배경으로 반드시 군대를 필요로 한다. 그것은 비상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평상시에 필요하다는 게 특징이다. 예를 들어, 일본의 '분쟁'은 대(對)러시아 북방 4개섬 쿠나시리에토로프, 대(對)한국의 독도, 대(對)중국.대만의 첨각열도이고 이른바 영유권이나 영해문제이다. 그리고 대(對)북조선이라는 문제이다. 이런 것은 오히려 타국과의 외교적 교섭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국내여론을 부추겨서 내셔널리즘을 빚어내면서 전쟁을 위한 군비증강이라는 국내정치문제가 된다.

오직 비전(非戰)밖에 없는 입장

여기서 전쟁에 대해서 아무래도 언급해야겠다.

내 일생동안 가장 간절한 문제가 무엇이냐고 질문을 받으면 주저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전쟁'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나는 10세에서 25세까지 이른바 15년 전쟁, 특히 마지막 시기인

패전까지의 수년간은 일상성의 상실을 당연지사로 하는 더할 수 없이 엉망진창에다 비인간적인 나날이었다. 오직 파멸과 죽음만이 있는 내일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생을 살았다. 전쟁은 절대로 안 한다!! 이것은 지금 70이 넘은 사람은 그 누구나 일생 잊을 수 없는 경험에서 우러나는 결심이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천황가족이거나 그것과 멀든 가깝든 관련된 입장에 있는 자들뿐이리라. 그러한 전쟁을 어느 날 갑자기 시작하더니, 똑같이 어느 날 갑자기 자기보신을 위해 휴전을 선언한 게 천황이었고 국가였다. 전쟁, 천황제, 국가는 이때부터 나에게는 어느 때나 적으로 바라보는 최대의 대상이 되었다. 그래서인지 신헌법이 발표되고 제 9조[3]가 명시되었을 때도 나는 전혀 무관하게 나의 신조로, 나의 맹세로 전쟁포기 – 비전(非戰)이라고 마음속에 다짐할 뿐이었다. 그래서 그것을 구체화한 것이 1953년 WRI(War Resisters' International) JAPAN에 가맹할 때부터이다. 나는 WRI에 가입할 때 다음을 서명했다.

(1) 병역이나 군무에 일체 종사하지 않는다
(2) 군수산업과 그것과 관련된 곳에는 취업하지 않는다
(3) 전쟁원인 제거를 위한 활동을 계속한다

전쟁을 싫어하는 것도, 피하는 것도,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비전(非戰)뿐이다. 그런데 지금 미국과 그 밖의 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의 총량은 지구전체인구를 몇차례나 살해할 수 있을까. 핵무기는 언제든지 투하된다. 오직 인민살해병기로서 존재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일본에는 북해도에서 구주까지[4] 50여기의 원자력발전소가 있다. 당연한 얘기지만 전쟁이 터지면 미사일은 원전을 노린다. 미사일 한발이 100킬로미터 사방을 죽음의 도시로 만든다는 것은 체르노빌사고에서 증명되었다. 이제 그만한 이유만으로 우리들의 입장은 이러니 저러니 논의할 것이 없다. 단호하게 비전(非戰)이다. 비전의 입장이외에 있을 수 없다.

베이유의 전쟁론

시몬느 베이유가 1933년에 쓴 자그마한 글「전쟁에 대한 고찰」을 읽어주기 바란다. 요약

3) 일본의 헌법 조항으로써 군대를 갖지 않고, 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평화헌법의 의미
4) 일본은 4개의 주요 섬(홋카이도, 혼슈, 시꼬꾸, 큐슈)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 북쪽 섬 홋카이도와 남쪽 섬 큐슈를 지칭. 즉 일본 전국이라는 의미

해서 소개하면,

마르크스는 현대의 생산양식은 노동수단에 대한 노동자의 종속으로 규정된다고 한다. 그리고 또 각 자본가가 고용한 노동자에 대한 투쟁이 결국은 노동자 전체에 대한 자본가의 투쟁으로 변한다는 것을 논증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전쟁은 결국 전투원(병사)의 전투수단(장비)에의 종속에 의해서 규정되는 것이다. 그리고 현대전의 진짜 주인공인 무기는 결코 스스로가 직접 전투를 하지 않고 전쟁에 나가지 않는 일부의 사람들의 조직(권력)에 의해서 관리된다. 이러한 관리장치는 자국의 병사, '국민'을 강제적으로 죽음을 의미하는 전쟁터로 내보내는 것말고는 전쟁의 수단을 갖지 못한다. 그래서 어떤 나라의 타국가에 대한 전쟁은 곧 자국 군대에 대한 국가적 군사장치의 발동, 다시 말해서 병사(국민)의 군사장치에의 종속을 강요받는다. 즉, 어떠한 전쟁도 국가와 참모본부의 모든 장치가 무기를 잡는 연령층의 자기국민에 대해서 전쟁의 양상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리고 기계는 노동자로부터 그들의 노동력만을 뺏고 자본가는 노동자의 해고이외의 강제수단을 갖지 못하는데 대해 군인은 생명을 바칠 것을 강제적으로 요구받는다. 게다가 군법의 협박 하에 임무를 강제당한다. 전쟁이 방위인가, 공격인가, 제국주의적인가, 민족적인가 등은 이미 문제가 아니다. 전쟁의 당사국은 모두, 적국도 똑같이 그것을 사용하는 한 이러한 방법을 쓰지 않을 수 없다. 거의 모든 전쟁론에 있어서, 특히, 사회주의자들이 빠져있는 큰 잘못은 전쟁이 무엇보다도 가장 잔혹한 죽음을 강제하고 있는 국내정치인데도 그것을 대화정치에서의 하나의 에피소드로 본다는 것이다. 그것은 극히 단순한 것 — 살육은 억압의 가장 근본적인 형태 — 이며 군인은 살육으로 내몰려서 죽는다는 사실이다. 그러한 억압의 장치는 한번 구성되면 파괴될 때까지 존립을 계속하는 것이다. 모든 전쟁은(비록 혁명가에 의해서 수행된다고 해도) 반동의 요인으로 보지 않으면 안 된다. 국가장치에 의해 일어나는 전쟁은 아무에게도 자유를 가져다주지 못한다. 혁명전쟁은 혁명의 무덤이다. 때문에 군인이라기보다 무장시민에 대해서는 지휘장치, 경찰의 강압, 특별재판, 도망에 대한 형벌 등을 일체 부과하지 않고 자의를 인정한다는 조건을 주지 않는 한 전쟁수행을 승인할 수 없을 것이다(근대사에서 한번 파리꼬뮨 때 이러한 전투가 있었다. 그게 어떤 결말을 가져왔는가 잘 안다). 전쟁에 종사하는 혁명은 반혁명의 타격으로 무너지든가 군사적 전투의 메카니즘 그 자체에 의해서 스스로가 반혁명으로 전화할 수밖에 없다. 거기서 혁명의 전망은 극히 한정된다. 혁명은 전쟁을 피할 수 있는가 — 이러한 곤란한 경우에, 일체의 희망을 걸고 도전하든가 아니면 포기하든가 둘 중 하나이다. 때로 전쟁이 혁명적 요인인 듯 보일 경우, 확실히 전쟁의 결과로 나쁜 조직의 장치는 붕괴·변혁한다. 그러나 그것은 마르크스의 정식이 말하는 국

가장치를 파괴하는 대신에 뒤바꾸는 혁명이 일어나는 데 불과하다. 이것은 이제까지 늘 일어난 사실이다. 역사는 국가권력장치가 시민의 정치행위에 더욱 억압을 가중할 때 이 장치를 파괴하기 위해서 권력장치를 직접 상대해서 투쟁하는지의 여부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하게 한다. 그러나 만일, 행동을 포기하지 않으려면 국가장치에 대해서 외부로부터가 아니라 내부로부터만 투쟁할 수 있다는 것을 알지 않으면 안 된다. 더군다나 전쟁의 경우 자기도 톱니바퀴가 되어 있는 전쟁장치의 기능을 저해하든가 또는 그 장치가 인간의 생명을 짓뭉개는 편에 서든가, 어느 편을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된다.

— 이것은 또 비폭력직접행동의 입장에서 펴는 전쟁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002년의 유언[5)]

무까이 꼬오(向井 孝)

20세기를 ‘전쟁과 혁명의 세기’라는 이가 있다. 그렇다면 나는 1920년에 태어났으니까 내 생애는 완전히 20세기 안에서 살았고 덤으로 21세기를 맞이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거의 전부가 20세기로 일생이 끝났다고 해도 괜찮을 것 같다.

그런데 9.11 이후에 나온 게 ‘테러에도 전쟁에도 반대’라는 그럴듯한, 일단은 누구든지 반대할 수 없는 슬로건이다.

이것 때문에 세계의 양상은 일변했다. 그때까지 의사(擬似)적 비폭력 자세를 취하고 있던 여러 국가는 그들이 가지는 위압적이고 압도적인 군사력을 드러내 놓고 반테러전쟁을 정의라고 하면서 테러사냥이란 명목으로 복종을 거부하는 전세계 인민에게 선전을 포고한 것이다. 새로운 21세기는 진실로 그러한 미국의 1국 지배를 선두로 한 ‘반테러 전쟁국가와 인민과의 싸움’의 세기로 시작되었다고 해도 좋다.

반테러전쟁을 정의라는 명목으로 세계를 지배하려는 미국과 이를 추종하는 국가들. 그러한 입장에 서서 오늘의 세계 상황을 재정립한다면 반테러국가군에 대한 인민의 비폭력직접행동의 움직임이 바야흐로 세계로 확대되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아니 그보다도 이제 비폭력직접행동밖에 없다는 것을 차츰 알아차릴 수 있게 되었다.

다시 한 번 말한다. 20세기의 ‘전쟁과 혁명’은 21세기에는 반테러전쟁국가들과 인민과의 대치상황에서 시작되었다. 오직 비폭력만을 말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새삼스레 내세우는 것이 비폭력직접행동이라는 것을 지금처럼 강력하고 명확하게 얘기해야 할 때는 없었다. 이것이 『현대폭력론 노트』 개정판을 간행하게 된 이유이다.

× × ×

헨미 요오(辺見 庸)의 ‘군대없는 세계로 ! (La Mondon sen Ameoj)’에서 우리가 할 수

---

5) 이 글의 앞부분은 『폭력론 노트(2002)』의 간행사 내용 중 일부이며, 뒷부분은 헨미 요오(辺見 庸)의 강연집에서 인용한 것임

있는 것.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선 각자가 한발짝씩 다가서서 이제까지 말한 적이 없는 것을 부모에게, 아들에게, 친구에게, 애인에게 얘기한다. 그날 그날의 생활, 직장, 이러저러한 곳에서 이러저런한 꼬투리를 잡고 늘어져서 복종하지 않는다. 부드럽게 복종하지 않는 태도를 이어간다. 민족주의적인 것, 국민적인 분노에 조심해서 대하고 개인적인, 흩어진 개인이 된다. 부드럽고 유연하면서도 지치지 않는다. 흐느적흐느적 하면서도 개인의 의견을 갖는다. 영속적이고 긴 불복종의 생활이 제일 중요하다. 하나하나가 개인으로서 대등하게 자유롭게 얘기하게 되면 세계는 변한다. 개인의 철학을 연마해서 가슴에 생기는 불복종의 정신은 간단히 깨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상황이 온당치 않을 때는 온당치 않은 행동도 나올 것이다. 극단적인 상황에 대해서도 우리는 더욱더 내면에 숨어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더욱더 자기 속에서 문제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저러하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각각 알맞은 싸움을 이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 그렇게 저렇게 우리는 군대·전쟁없는 세계를 만들어나가야 한다. - ㅎ -

전쟁을 부추기는 냉전시대의 잔당들[6)]

- 배후에는 군수산업과 석유자본의 그림자가 -

나루사와 무네오(成澤 宗男)

이라크 침공을 앞두고 부시정권이 ‘테러와의 관련’ 이나 ‘대량파괴무기의 보유’ 등을 구실로 해서 풍부한 석유자원을 차지하기 위해서 실제 작전계획을 세우는 것은 냉전시대의 잔당들이다. ㅡ 『주간 금요일』 편집부

“이라크에 대한 전쟁이 성공될 때 비즈니스의 형편이 좋아진다. 전 세계의 석유공급을 하루에 300 ~ 500만배럴 증가시킬 수 있다.” ㅡ 래리 린제이 경제담당 대통령 보좌관

“전쟁은 전망을 밝게 해준다. 이라크의 석유를 콘트롤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특히, 석유가격에 대해서.” ㅡ 윌리엄 세이드맨 전 연방예금보험공사 총재

부시정권은 지금까지 이라크공격에 대해서 ‘테러와의 전쟁’이나 ‘대량살상무기 보유’ 등의 명목을 들었다. 그러나 이면에서는 이와 같이 진짜 그들의 본심을 시사하는 말을 지껄이고 있다. 이미 미국의 3개 거대석유회사는 2002년 10월 후세인정권의 대체정부로 지목되는 반체제파 ‘이라크 국민회의’의 멤버와 회담하고 매장된 석유의 개발과 배분문제를 협의했다. 부시정권도 전쟁 후를 바라보고 ⑴ 석유의 증산폭, ⑵ OPEC탈퇴 등을 검토하는 팀을 발족시켰다. 이미 세계의 석유업계는 전쟁의 목적은 후세인 대통령을 대신해서 미국에 고분고분한 체제를 만들어 이라크의 석유를 콘트롤하는 데 있다고『오일 & 가스 인터내셔널(2002. 10. 30)』에서 언급하고 있다. 그렇지만, 대 이라크전쟁은 애당초부터 부시정권이 고안한 것이 아니다.

되살아난 냉전시대 잔당

이라크전쟁의 청사진은 미국의 9.11사건이 일어나기 1년전인 2000년 9월에 발표된 보고서에서 이미 자세하게 다듬어졌다.「미국 국방정책의 재구성 ㅡ 전략, 병력 그리고 자원」이라

6) 『週刊 金曜日(2002. 12. 20. No. 441)』에 수록된 글을 번역한 것임

는 보고서는 워싱턴의 싱크탱크 “미국의 신세기를 위한 프로젝트(PNAC)”가 만든 것이다. 이 집단을 살펴보면 몇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드러난다. 우선 PNAC의 주요멤버는 현 부시정권에서 무작정 전쟁을 추진하는 초매파집단 그 자체라는 점이다. 딕 체니 부통령을 비롯해서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 폴 월포위츠 국방부장관, 루이스 러비 부대통령 수석보좌관, 엘리엇 에이브람스 국가안전보장회의 선임이사 등등이 줄줄이 앉아 있다. 또 대 이라크 초강경파이자 국방성의 자문기관 국방정책위원회의 리처드 펄 위원장을 비롯해서 엘리엇 코헨, 프랭크 거프니 두 위원도 PNAC에 참여했다. 이들 중에 포드정권시절 같은 직책에 있던 럼즈펠드 국방장관을 빼고 도표에 제시한 것처럼 태반이 냉전시대에 매파로 이름을 떨치던 레이건 정권과 그 아류 부시(아버지)정권의 스탭이다. 그래서 이제 외교의 중추를 장악하게 된 그들 집단에 대해 ‘레이건 정권시대에 공화당 내에서 지배적인 역할을 담당한 우파집단’이 20년전과 본질적으로 똑같은 전선을 형성했다고 평가(아틀란타 저널 2002. 9. 28)하고 있는데 과연 그렇다고 생각한다.

PNAC주요멤버들의 현재직책	이전 직책(당시의 대통령)
딕 체니 부통령	국방장관(부시 아버지)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	국방장관(포드)
폴 월포위츠 국방부장관	국방부 차관보(레이건)
루이스러비 부대통령 수석보좌관	국방성 고문(레이건)
엘리엇 에이브람스 국가안전보장회의 상급이사	국무성 차관보(레이건)
리처드 펄 국방정책위원회 위원장	국방성 차관보(부시 아버지)
엘리엇 코엔 국방정책위원회 위원	국방성 정책입안 스탭(레이건)
프랭크 거프니 국방정책위원회 위원	국방성 차관보(레이건)
존 볼튼 국무차관(군비관리담당)	법무장관 보좌관(레이건)

부시정권 군사전략의 뿌리

사실 9.11 사건을 계기로 부시정권 내에서 아프가니스탄공습이 결정된 직후 9월 19일 중동에서의 “무제한 전쟁계획”을 주장하는 월포위츠 국방부장관은 펄 위원장과 회담했는데 그때 이미 후세인대통령의 추방과 석유 탈취등을 내용으로 한 대(對) 이라크전쟁의 골자를 결정했

다. 언제나 적을 찾는 냉전사고에 젖어있던 그들은 구소련 대신에 테러리스트나 빈 라덴, 후세인 등 새로운 적을 찾아냈던 것 같다. 그리고 이들의 보고서에 들어있던 내용이 금년 9월에 발표된 미국의 '국가안전보장전략'을 비롯한 현 부시정권의 군사정책과 흡사하다는 것이다. 이미 보고서에서는 후세인의 추방을 포함해서 걸프지역에서의 군사작전을 주장하고 있었는데 '국가안전보장전략'에서도 미국의 외교목적은 걸프지역의 석유를 방해받지 않고 손에 넣는 것을 보장받는 데 있다고 명기했다. 더군다나 ⑴ 종래의 '억제 및 대화'에서 선제공격의 중시로 ⑵ 군사비를 GDP비율 3.8%까지 상승 ⑶ 초소형 핵탄두 개발과 투입 ⑷ 이란, 이라크, 북조선 3국에 대한 군사적 압력의 강화 등의 항목이 있다. 이와 같이 부시정권의 정책을 콘트롤하는 PNAC의 멤버들이지만 그들은 단순히 시대착오적인 전쟁을 부추기는 집단이 아니다. 럼즈펠드 국방장관은 유명한 군수산업의 대리인이고 PNAC를 주재하던 부르스 잭슨 전 의장은 레이건 정권시대에 국방성에 근무하다가 미국 제일의 군수기업 록히드 마틴의 임원으로 있었다. 이러한 인맥에서 이라크공격으로 상징되는 부시정권의 군사정책이 군산복합체의 이익을 보장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또, 국방정책위원의 일원으로 "냉전에 이어 9.11로 제4차 세계대전은 시작되었다"는 등 이라크전쟁을 부추기는 제임스 울시 전 CIA국장도 마틴 마리에타(현 록히드 마틴)등 몇몇 거대군수기업의 임원을 역임했다.

폭로된 음모, 석유정복

여기에 체니 부통령은 거대석유서비스회사 해리버튼의 전 최고경영책임자로 석유업계에서 제일 가는 부자이며 최대의 인물이라고 알려져 있다(영국 가디언지 2002. 10. 6). 작년에 자신이 책임자가 되어 발표한 '국가에너지정책 보고서(체니 리포트)'에서 미국이 걸프지역의 석유를 손에 넣는 것을 용이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부통령의 뜻을 받아들여 작년에 발표된 당시 정권의 가장 영향력이 강한 록펠러계(산하에 세계최대의 석유회사 엑슨 모빌이 있다)의 싱크탱크 '외교문제 평의회'의 보고서도 석유에 대한 노골적인 야망을 보여주었다. 「21세기를 향한 전략적 에너지정책의 도전」이라는 이 보고서는 세계의 석유는 점차 감소한다는 전망 하에 이대로라면 에너지가격의 상승과 이에 따르는 경기후퇴와 사회불안은 불가피하다고 예측했다. 더구나 지금이야말로 안전보장상 긴급사항으로 군사력을 투입해서라도 싸고 풍부한 석유의 접근을 서둘러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는데 그 대상으로 오직 걸프지역을 강조하면서, 특히 이라크의 석유생산을 확대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실 에너지성의 추산으로는 이라

크의 석유매장량은 1억 1300만배럴인데 이것은 사우디에 버금가는 양으로, 최근의 조사에서 미개척광맥을 포함하면 미국의 수입량의 98년치에 해당하는 2억 2000만배럴로 수정하였다. 그러니까 싸고 풍부한 석유를 소유하는 이라크만이 차후 미국이 찾는 수준의 석유를 확보할 수 있다고 한다(영국 가디언지). 냉전시대의 잔당인 매파들이 권력에 복귀하고 별 볼일 없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군수산업이 원유공급의 절감에 떨고 있는 석유자본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다. 새로운 적에 대한 공격의 구실을 생각하면서 또다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이라크위기의 본질이다.

비인도(非人道)[7]

헨미 요오(辺見 庸)[8]

세계는 이처럼 동요한다. 나는 그 동요를 바라보고 있다.
그러나 동요에 가담하지 못한다.
나의 세계와 현실의 세계는 하나의 평면에 놓여있지만 아무데서도 만나지 않는다.
그래서 현실의 세계는 그렇게 동요하면서 나를 뒤에 두고 지나간다.
엄청 불안하다.

— 나쓰메 소오세끼

1. 그건 너무나 어둡고 비관적인 미래영화였던 것 같다. 기억이 희미해졌지만 꿈은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몇핸가 전에, 확실히 여행중에 베를린의 호텔에서 암담한 마음으로 보았다. BBC(영국방송협회)가 제작한 것 같았다. 제목은, 이것도 확실하지 않은데, 아마 「2025년」이든가……

영화에서는, 이것도 어렴풋한 나의 기억인데, 2025년쯤에 가서 세계는 지금과 달리 대동란에 휘말린다. 서양도 동양도 처참한 불황이다. 서구에는 무수한 난민이 밀려들어온다. 난민들은, 때때로 폭도가 되어 군대가 기관총을 난사해서 진압하기도 한다. 경제적 이해관계 때문에 EU와 미국은 일촉즉발의 적대관계가 되어 있다. 미국은 어떤가하면 백악관 마당에 잡초가 무성할 만큼 몰락하고, 대통령은 이제까지와 같이 코카소이드(Caucasoid)가 아니고 인구신장률이 높은 히스패닉계에서 선출되었다. 중국은 내전으로 진흙탕같이 되어 있다. 북경정부와 관동정부든가 상해정부든가, 어떤 지방정부가 서로 무력충돌을 일으키고 난민이 일주일에 수만명씩 바다를 건너 일본을 향해서 밀어닥친다. 그런데 일본은, 바로 그 일본은 그때쯤이면 본격적으로 군국주의화해서 해군력까지 동원해서 난민저지의 해상작전을 전개하고 있다. 여하튼, 희망이라고는 눈꼽만치도 찾아볼 수 없는 미래예측이기는 했지만 그런 것이었다. 여기까지 쓰고

7) 헨미 요오(辺見 庸)가 쓴 『永遠の不服従のために(영원한 불복종을 위하여, 마이니찌신문사(每日新聞社). 2002. 10)』의 일부분을 번역한 글임
8) 일본 기자 출신의 평화운동가

보니 조금은 마음이 내키지 않는다. 기억이 혼탁해졌는지, 내가 덧붙였는지, 양쪽 모두인지도 모른다. 그건 역시 꿈이었는가하는 생각도 든다.

2. 그러나 실제로 앞으로 4반세기쯤 지나면 세계는 어떻게 돼 있을까. 미국은 계속해서 세계의 패권을 쥐고 전과같이 오만하게 어떻게 해라, 저렇게 해라하고 각국에 명령하고 큰소리 치고 있을까.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이건 단순한 나의 감이지만 대강「2025」에서 예측한 대로 미국은 처참하리만치 몰락하고 있지 않을까.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더할 수 없이 비도덕적인 폭격이 시작되었을 때, 나는 그렇게 직관했고, 나의 직관이 맞어떨어지기를 마음 속으로 빌었던 것이다. 여하간에 미국에 영국에 의한 아프간 폭격은 앞으로 장기간에 걸치는 세계동란의 요인을 결정적으로 만들어냈다.

나로서는 이제와서 구미의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 단 한발의 값으로 굶주린 아프간난민 수만명이 얼마동안 배를 채울수 있을 만큼 비싼 순항미사일을 매일같이 하루에 몇 십발씩 인정사정없이 쏘아댈 수 있는 미국, 영국의 '지성'— 비도덕성 — 을 눈으로 확인하면서 나는 마음 속으로 다짐했다. 이러한 '지성'은 하루라도 빨리 멸망하는 게 좋다고. 처참한 폭격과 함께 식량과 약품을 공중에서 투하하는 이른바 미국식 '자비'를 보고 나는 생각했다. 어쩌면 저렇게 오만할 수 있을까. 그들은 무참하게 무고한 사람들을 학살하면서 한편으로 인명을 구조하는 것을 인도적이라고 생각하는가. 사람을 무참하게 두들겨패면서 한손으로 쓰다듬어주는 게 휴머니즘이라고 생각하는가.

3. 이렇게 오만불손한 '자비'야말로 사실은 같은 인간에 대한 엄청난 모멸이고 차별이라는 것을 왜 모르는가. 이러한 '이념부재'도 세계동란의 새로운 불씨로 작용하는 것이다.

보복공격에 참가하고 있는 미.영을 중심으로 하는 부자들의 강국이 지금, 그들이 자랑하는 정밀유도병기(미사일)를 구사해서 착실하게 다지는 것이 있다. 그것은 테러의 근절은 더더욱 아니고 사실은 테러의 육성이다. 다시 말해서 부도덕한 폭격을 거듭해서 아프간의 주민, 나아가서 이슬람 세계, 그리고 빈곤한 나라의 주민들이 마음 속에 다짐하는 '원한의 불씨'를 자극해서 싹을 틔우고 있다는 것이다. 그건 인간폭탄이 되어 언제가는 구미강국(어쩌면 일본에도)으로 밀어닥칠 것이 뻔하다. '영원한 자유'라는 이름의 그들의 무서운 작전이 나날이 확대재

생산되고 있는 것은 빈곤층의 부유층에 대한 ‘영원한 원한’이야말로 세계동란의 요인인 것이다.

그건 그렇고 이른바 자칭 세계의 보안관 부시가 외쳐되는 ‘테러의 근절’에 대해서 걱정이 크다. 나치가 말한 ‘최종적 해결’과 어쩐지 공명하는 것이다. 부시라는 사나이는 테러리스트라는 거의 무한정한 가변적 개념을 자기와 다른 피를 갖는 ‘이질적 종자’나 뭐 그런 것으로 여기는 구석이 있다. 반미주의자라면 누구든지 테러리스트거나 아니면 예비군으로 단정하는 것 같은 데가 있다. 그래서 그러한 ‘이질적 종자’를 그들의 이념과 함께 물리적으로 말살할 수 있다고 믿는 것 같다. 유대인들은 가스실에서, 테러리스트는 정밀유도병기로 말살할 수 있다고 말이다. 바꿔서 말하면 그들의 ‘불후의 작전’은 질적으로 나찌의 유대인에 대한 ‘최종해결’의 실천과 어딘가 닮은 데가 있다. 이러한 작전의 배후에는 완고하기 짝이 없는 시온주의자(시오니스트)들이 있다고들 하지만 사람이란 실로 과거에서 배우지 않는가 보다.

그래서 이렇게 무지몽매하고 거만한 대통령각하는 다음과 같은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한다. 테러리즘에는 국가에 대한 것과 국가에 의한 것이 있는데, 부시 자신이 지금 아프간 사람들에 대한 확실한 국가테러의 두목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 같다. 반국가 테러리즘과 국가테러리즘은 범죄와 그 피해 규모가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국가테러리즘에 따르는 압도적인 살상(殺傷)이 반국가테러리즘의 발생요인이 된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가 힘을 합해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라고 할 수 있는 국가를 친다. 이것이야말로 최대의 테러이며 미래로 이어지는 동란요인이 된다.

뭐라고? 첫머리에 인용한 글의 뜻이 무엇이냐고?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구만…. 이것은 말하자면 일종의 말맞추기라고 할까. 오늘날 ‘근대인의 고독’도 개나발도 있을 수 없다. ‘세계적 동란’을 수수방관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아프간 공격반대의 목소리를 크게 아주 크게 외쳐대자.

— 그리고 이라크 전쟁반대의 목소리도 크게 아주 크게 - ㅎ -

운디드니 이후……[9]

혼다 카쓰이찌(本田勝一)[10]

미아메리카 합주국(合州國)이 일방적인 ‘부시전쟁’으로 아프가니스탄 공습을 계속하고 있다. 예측한 대로 일반주민 다수가 사상(死傷)당했지만 이에 대해서 미국은 조금도 아랑곳하지 않고 하늘에서 무차별학살을 계속할 것이라는 것은 예상하고 있던 바이다. 왜 그런가?

미합주국을 ‘시작’부터 점검해 보자. 이 나라는 500여년전 ‘콜롬부스의 대학살’로 시작된다. 그러니까 남북아메리카대륙(그리고 부속도서)의 몇 천만명인지 모르는 선주민족들에 대한 비극적 학살에서 시작된다. 이것은 아마 인류사상 최대의 비극이라고 생각한다. 미합주국이 직접 관여한 것으로 북미의 선주민족이 최근까지 얼마나 학살되었는가 하는 것은 일본인이 쓴 세계에 자랑할 만한『アメリカ.インディアン悲史(아메리카 인디언 비사)』가 있다.

워싱턴 초대대통령시대부터 감행된 침략은 최후의 조직적 학살 ‘운디드니’에서 끝나지만 그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1900년에 필리핀을 침략한 미군에 의해서 ‘10세 이하의 모든 남녀’가 루송섬 사말섬에서 학살되었다. 그 사건은 후일 일본점령군사령관이 된 맥아더의 부친, 아더 맥아더 장군의 명령이었다. 이때 학살군의 지휘관은 바로 미국본토에서 선주민을 학살한 베테랑 전투병들이었다. 이렇게 미국 선주민 대학살의 역사는 아시아인 학살에 직결된다.

아들 맥아더를 최고사령관으로 받드는 미군은 도쿄 대공습이나 히로시마.나가사끼에 대한 무차별 대학살을 ‘진주만’공격에 대한 ‘반격’으로 강행한다. 진주만 공격은 군사시설에 국한되었지만 도쿄와 히로시마.나가사끼는 주민의 생명 그 자체가 목표가 되었다.

그리고 5년후 조선전쟁이 시작된다. 이때의 미군에 의한 주민대학살에 대해서는 마쓰모또 아끼쓰구(松本昌次)의「朝鮮の旅行(조선의 여행)」에 ‘신천대학살’과 ‘노근리대학살’ 등에서 밝혀졌지만 최근에 와서 ‘노근리대학살’은 다시 폭로되었다.

조선전쟁이 끝난지 10년이 채 지나지 않아 미군은 베트남전쟁에 개입한다. 손미사건 기타 미군에 의한 선주민대학살과 같은 무차별 부녀자 대학살이 카우보이 미군병사에 의해서 ‘즐겁

---

9) 『週刊 金曜日』(2001. 11. 2. No. 386)에서 번역한 것임
10) 『週刊 金曜日』 편집위원

게’ 펼쳐졌다.

베트남전쟁이 끝나고 26년이 지난 지금 아버지 부시에 의한 이라크 전쟁(걸프전쟁)을 겪고 아들 부시가 국제연합을 무시하고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쟁을 시작했다. 운디드니 당시의 대통령과 오늘의 카우보이 부자대통령 사이에서 인식에 기본적 차이가 없는 이상 유색인이고 이교도(비기독교도)에 대한 무차별 폭격(학살)은 당연하다. 양심적 아메리카인도 있지만 그들은 비주류(소수파)일 뿐, 아프가니스탄에서 오랫동안 의료활동을 하다가 최근 탈출한 나까무라 테쓰(中村哲) 의사의 말 –

‘일련의 동향을 보면서 생각나는 것은 서부극의 속편 같다는 것이다. 용감한 백인들이 툭툭 나무를 자르듯이 인디언을 죽이고 지나간다.’

ㅡ 요즘, ‘미군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학살 사건’의 재판(미군에 의한)을 보면서, 이러한 한미관계를 설정한 이승만 이후의 매국노 도당들의 현실안주에 대해서 분노를 떨쳐버릴 수 없으며 이제야말로 이러한 한미관계 청산을 위해서 일어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한다. – ㅎ –

‘A’기차를 타라 !![11)]

- 평화로 가는 길 ; 아나키스트와 반전운동 -

하워드 에리히(Howard J. Ehrlich)[12)]

반전운동의 한계

‘반전운동’ 그 자체는 평화로 가는 운동의 전부는 아니다. ‘평화’는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이다. ‘평화’는 어느 시기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과정일 뿐이다. 이것은 사회구조의 양태이며 삶의 방식이다. ‘전쟁’은 하나의 사건이다. 이것은 협정, 항복, 또는 패배로 끝난다. 전쟁과 무기철폐협정 위반, 핵무기와 화학무기 저장, 우라늄무기 사용, 지뢰설치, 그 밖의 군사주의적 행동에 대한 저항은 ‘증상’을 치료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많은 고통과 신체적 손상을 감소시키거나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지는 몰라도 필연적으로 그 이상을 해결하지는 못한다.

반전운동은 행동하고 직접적으로 반대하는 운동이다. 이 운동의 동기는 사회 개혁적이다 ; 이 사회에서 전쟁을 멈추는 것이다. 반전운동그룹의 전략은 시민불복종, 직접행동 등과 같은 것이 될 수는 있어도 근본적인 사회변혁이 그 주요전략이 될 수는 없다. 커다란 연대형성은 집회나 시위, 그 밖의 저항에 있어서 그 규모 때문에 유리할 때가 많다. 하지만, 그 연대조직은 집행주체가 작기 때문에 실질적인 활동가를 배출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는 경향이 있다. 사람들은 각종 시위나 집회에 참가하여 활동하지만 제대로 자기 위치를 찾지 못하고 헤매면서 지쳐버리기까지 한다. 일반적으로, 연대조직의 주체는 정치적인 몇몇 큰 단체에서 월급을 받는 상근 활동가, 소수의 급진그룹의 멤버, 아니면 운동에 전념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여건이 갖추어진 사람들인데, 학생, 비주류사회의 개인, 또는 주변의 도움으로 생활이 가능한 사람들이 그들 중에 속하지 않나 싶다. 물론, 그들의 공통점은 전쟁에 대한 혐오, 인류애, 그리고 자유로운 활동을 위한 충분한 시간이 주어져 있다는 것이다.

반전운동그룹은 사회변혁의 이론을 갖고 있지 않다. 그들은 주로 자유주의적 자본주의나

---

11) 『ONWARD Vol.3』 Iss. 1 을 번역한 글이며, 원문은 http://www.onwardnewspaper.org에서 참고하였음

12) Howard J. Ehrlich는 아나키 잡지 『Social Anarchism』의 편집자(sociala@nothingness.org)임

때때로 사회민주주의와 엇비슷한 것을 가치로 여기고 있다. 그들의 사회변화에 대한 인식은 ‘애매한 사회 개량론’이다. 즉, 이 세계는 함께 행동하는 좋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점점 나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선거정치를 이러한 발전의 기본 축으로 인식한다.

반전그룹의 주요과제는 정당성, 전쟁종식, 피해자 구호, 정치탄압과 인종폭력반대, 사회정의 실현 등이다. 보통 그들의 요구는 현실적으로 현재 그들의 역량으로는 실현 불가능한 이상인 경우가 많다. 반전그룹은 저항의 방법으로 비폭력을 원칙으로 하는 경향이 있다. ‘폭력’과 ‘비폭력’의 차이에 대한 애매 모호함, ‘직접행동’과 ‘시민불복종’의 의미에 대한 심각한 이견과 비폭력과의 관계설정 등의 어려움 속에서 운동을 조직하는 사람들은 저항세력을 하나로 묶는 분명하고도 가장 기본적인 이슈를 끌어내기 위해 종종 중요한 문제를 간과하기도 한다.

또, 반전평화운동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사회의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변화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에 대한 표현이기도 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은 어쩔 수 없다고 받아들인다. 이 배경은 권위주의, 개인주의, 반주지주의, 가부장주의, 민족중심주의라는 것이 둘러싸고 있는 미국이라는 나라의 좋지 못한 특징과 얽혀있다. 이것은 정치적 침묵과 정치적 무관심의 원인이 되며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어떤 노력도 힘을 얻지 못하게 한다.

평화로 가는 길

평화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는 네 가지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다.

첫째,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반대하는지 그 대상을 분명하게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시민불복종과 직접행동에 기초하여, 시위, 철야농성, 유인물 배포, 정치적 낙서를 통해서, 또, 독립 언론, 인포샵(infoshops), 모금을 통해서, 그리고 버튼을 달거나 소리높여 반대를 외침으로써 – 모든 가능한 방법을 동원하여 – 우리는 현재의 전쟁정책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여기서 조심해야 할 점은 그러한 행동이 관성화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되며 정치계몽의 원래 목적을 잊어서는 안 된다.

둘째, 우리는 권위를 무너뜨리도록 노력해야 한다.

우리 사회의 깨기 힘든 한가지 믿음은 ‘예측가능성’이다 – ‘일상에서의 사람들의 행동과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은 이해할 수 있으며 반복적이다’라는 믿음. 그리고 또 하나는 ‘국가는 선한 것이다’라는 신념이다. ‘정의가 이길 것이며, 이 사회는 정의롭다’라는 생각은 혁명적

인 아이디어를 없애는 데 매우 치명적이다. 관료주의는 부정의를 감추기 위한 조직적 형태이다. 교육과 오락을 위한 매스미디어는 ‘사회는 공평하다’라는 믿음을 심어주기 위한 기본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좋아하는 지도자나 존경받는 부자의 모습에 ‘예측가능하고 공평하다’라는 인간의 얼굴을 씌운다. 종교는 부정의한 사회의 피해자를 달래주고 종교의식이나 사후세계 탐닉을 통해 현실세계의 요구를 무마시킨다. 사회안정을 위한 이러한 사회제도들의 권위와 대표성의 가면을 벗기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다. ‘테러와의 전쟁’에서 그것들의 역할은 대중에게 이 전쟁은 정당하며 시민들의 자유의 희생은 정의를 추구하는 데 필요하며 우리들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다고 확신하게 만드는 것이다. 우리의 임무는 대중에게 그것들은 정직하지도 않고 그 역할도 다하지 못하며, 존재이유가 오직 기득권자들의 부와 권력을 늘이는 데 있다는 것을 밝혀 그것들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데 있다.

셋째, 우리는 자본주의를 반대해야만 한다.

정치, 경제적 시스템으로서의 자본주의는 그 자체와 시장을 지키기 위해 필연적으로 권력집중을 요구한다. 그것은 또한 끝없는 시장확대와 이윤확대를 요구한다. 자본주의는 스스로를 폭력을 통해,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안이 나올지라도 그것을 흡수함으로써 보호한다. 탈레반과 알 카에다와의 전쟁의 속셈은 카스피해의 천연가스와 석유확보를 위한 것이다. 자원확보를 위한 이러한 전쟁은 중앙아시아와 중동의 군사력 유지와 송유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 군사기지의 유지와 확대를 위한 전쟁으로 발전하게 된다. 그리고 군수방위업체와 무기거래상을 배부르게 하는 것도 전쟁이다. 평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반자본주의운동은 무기거래 철폐, 스타워즈 계획중지, 핵무기와 생화학무기의 해체 합의, 지뢰생산 중지, 군수산업체의 전환 등이 포함될 것이다. 그리고 반자본주의운동은 분명한 경제사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 중에는 식량조합, 인포샵(infoshops), 지역화폐, 공동주택 등과 같은 대안적 제도들이 있을 것이다. 또한, 사회적 부를 노동자가 소유하고 관리한다는 원칙을 가진 평화운동이어야 한다. 이것은 반자본주의적인 경제체제를 위한 분명한 방향이다.

넷째, 우리는 아나키즘을 새롭게 만들어가야 한다.

반전운동그룹에서 아나키는 특히 결정구조나 행동절차에 관계한다. 이 과정에서 반전그룹 내의 권력분산, 개인참여 극대화, 만장일치나 그 밖의 비위계적인 절차에 의한 결정구조 도입, 엘리트주의의 배제, 성별, 인종, 나이, 그 밖의 다른 모든 권위주의적 요소 배제, 교육프로그램 등에 아나키는 관계한다. 아나키스트는 마르크스주의자나 자유주의자와 마찬가지로, 이 전쟁과 사회체제의 부당함에 대해 지적하지만, 아나키스트가 다른 주의자들과 구별되는 한가지 매우

중요한 차이점은 아나키 사상에 존재하는 유토피아니즘이다. 이는 평화운동의 핵심이며, 반전운동에는 없는 요소이다. 반전운동은 야만성에 대한 근절과 새로운 사회의 필요성만을 이야기한다. 운동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히 실현 가능한 목표가 필요하다. 평화운동에는 평화로운 사회의 스케치가 필요하다. 그것이 없으면 이것은 대안 없는 단지 반대만을 위한 운동일 뿐이다. 스케치는 스케치일 뿐이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방향성을 제시해준다. 우리는 좋은 사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한다.

평화 그 자체가 길

또다른 새로운 세상으로는 어떻게 갈 것인가? 물론, 거기에는 다음 단계가 있다. – 도약. 그리고 이 단계에서 우리는 확실히 이상주의자들과 '현실주의자들'을 구분할 것이다. 이것은 스케치에서 실행으로 넘어가는 단계이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인가? 우리는 그러한 새로운 세상을 실현시킬 수 있을 만큼 용기와 상상력을 가지고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새로운 세상에는 평화로 가는 길은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급진주의자 A. J. Muste가 말했듯이 '평화 그 자체가 길'이기 때문이다

아나키즘이란 무엇인가 ?[13)]

“An Anarchist FAQ[14)] Webpage"는 아나키즘을 사회적 아나키스트의 입장에서 설명하고 있다. 10개의 섹션으로 상세한 해설을 하고 있는데 아나키즘에 대해 알고 싶은 이에게 좋은 사이트가 될 것이다. 아래의 글은 “아나키즘은 무엇인가?”의 서문으로, 짧지만 아나키즘의 기본적인 생각이 잘 나타났다고 생각하며 이것을 읽고 흥미를 느낀 사람은 꼭 본문을 읽어보기 바란다.

현대문명의 위기와 위계적 권력주의

현대문명은 세 가지 파멸적 위기를 내포하고 있다.

(1) 사회붕괴의 위기

자세히 말하면, 빈곤, 홈리스, 범죄, 폭력, 소외, 마약과 술의 남용, 사회적 고립, 정치적 무관심, 인간성 상실, 자립적.상호부조적 커뮤니티 구조의 쇠퇴 등이 진행되고 있다.

(2) 지구환경을 파괴하는 위기

모든 생명이 의존하는 복잡한 생태계의 파괴가 계속되고 있다.

(3) 대량살상병기가 확산되는 위기

특히, 핵무기의 확산이 진행되고 있다.

미디어의 주류를 이루는 논조나 체제측의 전문가와 정치가 등의 정통적 견해는 ‘이러한 위기는 각각 개별적 요인을 가진 개별적 문제이다. 따라서 다른 문제와 구별해서 개별적으로 대처하면 된다.’이다. 그런데 이러한 정통적인 방법으로 잘 안 된다는 것은 명백하다. 문제는 지금도 자꾸만 악화되는 데 있다.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파멸적인 전쟁, 생태환경의 최후적 파멸, 도시의 붕괴와 황폐화 등의 대재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

13) 『アナキズム(아나키즘) 제 2호(2002. 9. (株)ぱる出版, 『アナキズム』지 편집위원회』)』에서 소개된 내용을 번역한 것이며, 영어로 된 FAQ 전문은 http://www.infoshop.org 등의 웹사이트에서도 찾아볼 수 있음

14) FAQ란 ‘자주 묻는 질문’의 의미임

아나키즘은 이러한 위기를 하나로 포괄해서 해명하는 방법을 제기한다. 갖가지 위기에 공통된 근본원인은 바로 자본주의나 공산주의를 불문하고 모든 문명사회의 주요한 조직이 갖는 위계적인 권력주의다. 따라서, 아나키스트의 분석은 '현대의 주요한 사회조직은 모두 위계적 형태'라는 사실에서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 회사, 관청, 군대, 정당, 종교단체, 대학 등은 피라미드 구조의 우두머리에 권력이 집중되도록 조직된다. 이러한 위계구조에 집중된 권력관계가 개인, 사회, 문화에 대해서 얼마나 나쁜 영향을 끼치는가를 이제부터 제시하겠다. 이 FAQ의 전반(섹션 A - E)에서는 위계적인 권력과 그것이 낳는 해독에 대한 아나키스트의 자세한 분석을 제시할 것이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아나키즘은 단순하게 부정적이며 파괴적인 현대문명 비판'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단순히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일례를 들면, 아나키즘에는 자유로운 사회에 대한 제안이 있다는 것을 상기하기 바란다. 엠마 골드만은, "오늘 우리가 직면한 문제는 타자와 더불어 있으면서 어떻게 자기자신이 되는가 하는 것, 전 인류와 깊게 공감하면서 자기의 개성을 잃지 않고 보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바꿔 말하면, 타인을 희생으로 삼지 않고 개인의 잠재적 개성을 꽃피게 하는 사회를 어떻게 창조할 수 있는가이다. 이것을 실현시키려면 말단까지 조직된 기구에 의해서 지배되는 중앙집권적 위계구조가 아니라, 인간성에 관한 문제는 '개인이나 개인의 자발적 연합에 의해서 운영되는' 사회를 구상하지 않으면 안 된다. FAQ의 후반(섹션 I -J)에서는 이렇게 "Bottom Up(아래에서부터 위로)"방식으로 사회를 조직하는 아나키즘의 포지티브한 제안에 대해서 말한다. 아나키즘의 건설적인 중점사항 몇 가지에 대해서는 전반에서도 언급된다.

크리포드 허파는 "좋은 아이디어는 항상 단순한 것인데 아나키즘도 잘 생각해보면 대단히 간단한 것이다. 인간은 명령받고 살기보다(권력으로부터) 자유롭게 사는 것을 훨씬 좋아한다."

개인(개성)을 최대한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사회의 자유를 추구하기 위해서 아나키스트는 '사람들을 억압하는 모든 조직'은 없어지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모든 아나키스트의 공통된 것은 자유로운 인간성의 발달을 가로막는 강압적인 정치조직, 사회조직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사회에 대한 욕구이다."

조직의 억압적 성격은 위계구조에서 유래한다는 것을 이제부터 본문에서 얘기해 보고자 한다.

아나키즘 FAQ와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할 아나키스트들

아나키즘은 사회, 경제, 정치의 이론(학설)이지 이데올로기가 아니다. 이러한 다름은 대단히 중요하다. 기본적으로 이론(학설)은 ‘당신이 갖는 생각’을 의미하지만 이데올로기는 ‘당신이 생각에 소유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나키즘은 뭉뚱그려진 사상이기는 하나 항상 진화하고 변화하는 사회에 대해서 가연성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새로운 것에 의해 수정되고 변경되는 유연성을 갖는다. 사회가 발전하고 변화하면 아나키즘도 또 발전하고 변화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이데올로기는 사람들이 도그마틱하게 신앙하는 경직된 일련의 사상이라 늘 현실을 무시하거나 옳다고 하는 이데올로기에 맞춰서 ‘현실’쪽을 억지로 바꾸기도 한다. 이렇듯 침대의 크기에 사람의 키를 맞추는 ‘경직된’ 사상이 바로 문제인 것이다. 이런 구조는 레닌주의, 객관주의, 자유주의 등 어떠한 종류의 이데올로기에든 모두 똑같다. 독트린(교의, 원칙)의 이름으로 개인성을 파괴한다. 그러나 지배엘리트의 이익에 대개가 합치한다. 미하일 바쿠닌은 이렇게 말한다. “이제까지의 인류역사에서 많은 가난한 사람들은 냉혹한 추상개념의 이름으로 피의 희생에 제공되어 왔다. 다시 말하면, 신, 국가, 국가권력, 민족의 영광, 역사적 권리, 사법권, 정치적 자유, 공공의 복지 등이 그런 것이다.” 도그마는 경직되고 움직이지 않는 점에서는 죽은 것과 다름없다. 종교적인 도그마이든 비종교적인 도그마이든 그것은 대개 옛날에 죽은 ‘예언자’의 업적인데 그것을 제자들이 우상으로 섬기면서 돌과 같은 불변의 것으로 만들어진다. 아나키스트는 살아있는 자가 더 잘 살기 위해서 죽은 것을 매장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죽은 사람의 문제는 살아있는 사람이 결정해야 하며 그 반대는 아니다. 비판적인 사고, 즉 자유에 대한 네메시스(복수의 여신)는 바로 이데올로기이다. 그것은 정답이나 법칙이나 원칙으로 가득 찬 교전(敎典)을 우리들에게 부여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 FAQ를 만들어서 정답이나 새로운 교전을 제시할 생각은 없다. 우리는 과거에서 현재까지의 아나키즘에 대해서 설명하고 현재의 아나키즘의 모양에 더 많은 초점을 맞춰서 지금 왜 우리가 아나키스트가 됐는가 그것을 설명할 뿐이다. 그래서 이 FAQ는 여러분이 직접 스스로 분석하고 생각하는 재료를 제공하는 게 목적이다. 만약 여러분이 새로운 이데올로기를 찾고 있다면 미안하지만 아나키즘은 당신에게 맞지 않는다. 아나키스트가 현실적이고 실제적이 되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이해가 빨라지는 게 아니다. 이해가 빠른 사람은 ‘전문가’나 ‘권위자’가 옳다는 것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그래서 늘 노예가 되어버린다.

바쿠닌은 “사람이 자기의 신념에 따라 자기의 깊은 확신에서 행동하고 얘기할 때 가장 강력하다. 따라서 주위의 상황이 어떻든간에 자기가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다. 비록 쓰러지는 일이 있어도 자기 자신이나 자기의 주장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썼

다. 바쿠닌의 말은 독립된 정신의 힘, 다시 말하면 강한 자유의 힘이다. 우리는 이해가 빨라지는 것을 권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의 말을 믿는 게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할 것을 권하고 있는 것이다.

끝으로, 이 FAQ가 아나키즘의 모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밝혀두며, 여기 쓴 것에 동의하지 않는 아나키스트도 많이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 글은 독자가 스스로 생각할 것을 기대해서 쓴 것이다. 우리는 아나키즘의 기초적인 사고방식이나 그에 대한 것을 응용해서 우리가 분석한 것을 보여주려 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가 표명한 생각의 핵심만은 비록 찬성할 수 없는 것이 여기저기 있다해도 모든 아나키스트가 찬동해주리라 확신한다.

환경문제[15)]

토다 키요시(戸田 清)[16)]

현대사회에서 과학기술의 이용이 가져다주는 자원.환경문제에 대해서 (1) 군사기술 (2) 운수기술 (3) 화학기술 (4) 농업기술을 예로서 생각해본다. 전쟁이 환경파괴와 자원낭비의 최대원인이라는 것, 자동차사회가 미국식 대량낭비사회의 근저(根底)에 있다는 것, 화학기술이 생물진화 40억년간을 통해 형성된 물질환경에 커다란 교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 본래 환경조화형기술이었던 농업이 환경파괴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서 이상 4가지 분야를 사례로 들었다. 이러한 사례에서 미국으로 대표되는 시장원리주의적인 자본주의, 구소련으로 대표되는 권위주의적 사회주의, 양자에 공통된 군국주의 등을 배경으로 해서, 과학기술의 이용이 이익우선, 국익우선으로 폭주했다고 생각한다.

1. 전쟁.군사와 자원.환경문제

핵무기를 비롯해서 현대병기의 거대한 살상.환경오염.자연파괴 등을 염두에 두고 '전쟁이야말로 최대의 환경파괴다'라고 흔히들 말한다. 21세기의 첫 해는, 동시다발테러(9월 11일)와 보복전쟁(10월 7일 개시)으로 끝났다. 걸프전쟁(1991) 시 유전에 불이 났는데, 불이 난 유전에서 배출된 대기오염 물질의 1일 배출량을 일본전체와 비교하면, 유황산화물은 29배, 질소산화물은 1.5배나 되고,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이산화탄소는 일본전체에 필적하는 것이었다.

아프가니스탄 공습에서 미군은 2001년 11월 1일 헤르만드(Helmand)주의 카자카이(Kajakai)댐을 공격하여 거의 무너지기 직전까지 가는 피해를 입혔다. 댐을 무너뜨려 대규모재해를 발생시키는 행위는 '환경병기의 사용'으로 제네바조약 제 1 추가의정서에서 금지하고 있는데 미국도 아프가니스탄도 일본도 아직까지 비준하지 않았다.

15) 일본의 과학기술사회론학회(2001. 10 설립) 『과학기술사회론연구 창간호(2002. 10. NO. 1)』의 연구논문 중에서 번역한 글임

16) 일본 나가사끼(長崎)대학 환경과학부 조교수

아프간 공습에 사용된 병기 중에서 특히 인도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클라스터 폭탄, 기화 폭탄, 열화우라늄 폭탄 등이다. 클라스터 폭탄은 공중에서 엄마폭탄이 열리면 수백개의 ‘새끼폭탄’이 튀어나온다. 새끼폭탄 중 10%정도는 불발탄이라 사실상 그것들은 ‘대인지뢰’가 되는데, 미국정부는 불발탄은 의도하지 않은 결과기 때문에 대인지뢰금지조약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열화우라늄탄은 걸프전쟁, 유고공습, 아프간공습에서 사용되었지만 핵분열이나 핵융합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미군은 ‘통상적 병기’라고 한다. 그러나 방사능오염을 일으키기 때문에 NGO는 ‘준(準)핵병기’라고 하며, 건강영향과 환경영향이 우려된다(International Action Center 1997)고 한다. 기화폭탄(연료기화폭탄, 통칭 데이지컷터 등)은 핵병기에 버금가는 위력을 나타내는데, 기화폭탄의 탄두에는 발암물질인 산화프로필렌이 사용되고 있다.

군사목적으로 환경이 파괴된 고전적 사례는 농약을 군사적으로 이용한 베트남의 고엽제 작전(1966 ~ 1971)일 것이다. 제초제 2, 4, 5 - T에는 발암성이 최기형성(催畸形性)을 갖는 다이옥신이 불순물로 들어있다.

군사과학기술과 그것이 주는 환경영향에 대한 STS(Science, Technology & Society.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이 사회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분석하는 실천연구와 운동)연구를 위해서 맨하튼 계획(원자탄 개발)이나 그에 관계한 사람에 대한 과학사적 연구는 선행연구로 참고가 된다. 20세기의 군사과학기술을 주도한 것은 미국이기 때문에 우선 미국의 세계전략을 배경으로 정부.군부.재계와 매스미디어, NGO, 민중의 상호작용을 분석하고 거기서 군사기술과 그것이 생명.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정당화나 이의제기가 어떻게 되었는지가 해명되어야 한다.

2. 자원낭비와 자동차사회

‘인구로는 4%에 불과한 미국이 세계자원의 40%를 소비한다’라고 미국의 역사학자 존 다우어(John W. Dower)는 지적했다. 1인당 에너지소비에서 미국은 인도의 29배, 일본의 2.2배나 된다. 미국의 부시정권이 2001년 6월 17일에 발표한 ‘국가에너지 정책’은 석유, 석탄, 원자력을 포함해서 에너지 소비를 더욱 가속시키는 것이며, 공표를 앞두고 체니 부통령은 ‘에너지 절약은 개개인의 기호를 속박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했다. 일본정부는 지구온난화 방지책으로 원전을 20기(나중에 13기로 수정) 증설하기로 했는데, 미국정부도 약 20년만에 원전추진으로 다시 나섰다. 지구온난화 방지 교토의정서에서의 이탈(2001. 3. 28)도 이러한 노선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부시정권의 각료 명단에는 군수, 석유, 화학, 자동차,

농약 등의 산업계 관계자가 줄줄이 늘어서 있다.

‘아메리카적 생활양식’의 자원.에너지 소비는 자동차 사회화가 큰 요인이다. 자동차업계는 환경오염.교통사고.에너지 소비가 적은 철도를 내몰고 자동차의 매상을 신장시켰다. 앞으로 적정한 운수기술체계를 어떻게 재구축하는가가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기술의 자원이용효율을 4배로 해서 세계전체의 생활수준을 배가하고 기아와 빈곤을 없애고 자원소비를 반으로 한다는 것이 ‘Factor4(Weizsäcker, Lovins and Lovins 1995)’의 개념인데, 거기서도 ‘수송생산성 4배화’의 사례가 설명되어 있다. 효과적인 버스노선체계를 도입한 브라질의 꾸리찌바시의 교통정책도 선진적 사례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또 구미각국에서는 노면전차가 재평가되고 있다.

1인당 종이소비에서 미국은 인도의 81배고 일본은 61배이다. 컴퓨터사회가 되었는데도 ‘페이퍼리스(Paperless)’가 되지 않고 ‘수요’를 창출하면서 광고용지 등에서 종이의 소비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과학기술과 자원환경문제를 연관지어 생각하면, 엔트로피론적 입장에서 ‘희소한 자원과 과다한 자원’, ‘깨끗한 자원과 더러운 자원’이라는 관점은 불가결하다고 생각한다. 깨끗한 자원으로서 물은 희소한 자원인데 ‘물부족 시대’가 우려되는 한편 기업에 의한 물의 매점은 수도사업의 민영화로, 특히 도상국의 저소득층을 강타하고 있다. 또, 하천행정이나 하천공학의 전환으로 주목받게된 생태공학은 전문지식과 경험지식의 대화를 포함해서 많은 과제를 제기하고 있다. 시노하라 다카시 등에 의해서 미국농업의 장기적 쇠퇴경향이 1980년대부터 경고되고 있는데 그 이유의 하나는, 강수량이 적은 지역에서 대규모 관개에 따르는 지하수의 고갈이다. 니켈 등 광물자원의 희소성은 21세기 후반에는 공업을 상당히 제약할 것이다. 화석연료 중에서 상대적으로 깨끗한 저유황석유는 희소하고 석탄 등은 제법 풍부하게 있다. 핵연료자원 등은 ‘더러운 자원의 과다’의 대표다. 일본의 전력회사는 세계의 자연유산과 문화유산에 인접한 오스트레일리아의 우라늄광산(개발 예정)에서 수입할 전망인데 국내의 인교토오게(人形峠, 지역이름) 우라늄광산의 미광(尾鑛, 저질의 광산물, 찌꺼기) 처리조차 아직 되지 않아서 재판중에 있다. 전이(電離)방사선 이외의 전자파도 자연계 밀도의 1만배가 되어 STS의 관점에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자원소비의 남북격차나 공해수출은 NGO나 연구자가 중시해야 할 ‘환경정의’의 과제이다.

3. 화학기술과 환경.건강

화학상품(염화비닐, DDT, PCB 등) 또는 비의도적 생성물(다이옥신)로서 유기염소화합물의 환경영향이나 건강영향이 문제가 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인위적으로 방대한 종류의 유기염소화합물이나 많은 종류의 유기취소(臭素)화합물이 합성되고 상품화되었는데, 생물계에서는 유기염소화합물은 세균이 만드는 항생물질 클로람페니콜 등 얼마 안된다.

인(燐)을 포함하는 유기화합물에 눈을 돌리면 대개 인.산소 결합을 하고 있으며 인.질소 결합은 많은 생물종에서 볼 수 있지만, 인.탄소 결합은 극히 일부의 무척추동물에서 볼 수 있을 뿐이다.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농약이나 독가스도 인.산소 결합을 하고 있지만 그 밖에 생물계에는 거의 아니면 전혀 없는 결합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유기인(燐) 농약은 생물에는 드물게 보이는 인.질소결합과 생물계에서 볼 수 없는 인.불소결합, 인.유황 결합을 한 것도 있다.

19세기 전반까지는 '유기화학'과 '생물화학'은 거의 같은 것이었지만 생물진화 40억년의 역사 속에서 만들어진 적이 없던 화합물을 인간이 계속해서 합성하고 이제와서 '유기화학'은 '생물화학'과 '석유화학'의 두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전세계에서 알려져 있는 화학물질의 총수는 1998년까지 1,800만종에 달했는데 그 대부분이 인공화학물질이다. 그 중에서 화학상품으로 유통되는 것은 매년 약 1,000종씩 늘어나서 현재 10만종에 이른다고 한다. 그 중 많은 것은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환경영향.건강영향을 생각하지 않고 널리 쓰여지고 있다. 예방원칙의 관점에서 '유기염소화합물의 총량규제'등이 조급하게 필요하다. 2001년 5월 22일 스톡홀름에서 채택된 POPs(잔류성 유기오염물질)조약 등은 그러한 방향으로의 시도이다.

담배(戸田 1988)는 식물에서 유래한 상품인데, 신대륙의 선주민들이 의식 등에서 조금씩 이용한데서는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었던 것 같다. 그러나 구미에서 19세기에 공업적으로 대량생산되면서 지금에 와서는 건강파괴의 최대원인이 되었다. WHO 등에 따르면 '담배병'에 의한 사망자는 연간 세계에서 400만명, 미국에서 약 40만명, 일본에서 약 10만명으로 추정된다. 담배산업은 군수산업과 함께 '죽음의 상인'으로 불리게 되었다. 마라위 등에서는 담배잎 건조가 열대림파괴의 최대원인이다.

화학공장이나 농약공장은 많은 직업병이나 공해병 그리고 환경오염을 가져왔다. 예를 들면, 미나마따병에 대해서는 기술사(史)나 화학공학을 포함해서 다면적인 해명이 필요하다. 국제적으로는 광범한 환경오염 측면에서 이탈리아의 세베소(Seveso)의 다이옥신오염사건(1976)이, 그리고 다수의 사망자를 낸 점에서는 인도의 보팔(Bhopal)의 이소시안산메틸 등 배출사건(1984)이 대표적인 것이다. 이탈리아의 공장은 스위스의 호프만.라.롯슈사의 손자회사의 것이고 인도의 공장은 미국의 유니온.카바이드사의 자회사였다. 이들은 모두 엄마회사에 비해서 안

전대책이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보팔사건에서 사망자는 10,000명을 훨씬 넘었고 아직도 많은 사람이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4. 농업기술과 자원.환경

농업은 처음부터 환경보전 기능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현재에 와서도 기본적으로는 변하지 않았지만 '농업의 공업화'는 환경파괴기능을 심화시켰다. 농업에 의한 고전적인 환경파괴는, 건조지역에서의 대규모 관개가 염분축적.사막화를 초래한다는 것은 고대 메소포타미아 이후부터 알려졌다. 그리고 현대농업기술은 농약과 화학비료에 의한 화학오염, 항생물질 과다사용에 의한 약제내성균의 만연, 지하수의 고갈, 석유의 대량소비, 품종의 획일화에 의한 재배식물.가축의 품종다양성의 감소 등 자원.환경문제를 가져왔다. '녹색혁명'이나 '생명공학' 등의 '기계론적 생물기술'을 전통기술과 대비해서 생태학적 합리성의 관점에서 검토한 반다나 시바의 연구 등은 농업기술의 STS 연구로서 유일한 선례다.

또 유전자조작작물(GMO)의 재배는 조작된 작물자체의 잡초화, 야생생물에 대한 유전자의 수평전달, 미생물에 대한 유전자의 수평전달 등에 의한 생태계 교란의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으며 그 징후도 일부에서 나타나고 있다. 기업은 농업오염에 대한 반성으로 바이오테크놀로지에 나섰다고 하지만 몬산토사 등의 기업전략에서 유전자조작작물의 개발목적은 제초제 내성작물과 해충저항성 작물에 현저하게 기울어져 있다. 제초제내성작물에는 농약(제초제)을 직접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령 농약의 사용량이 감소한다해도 잔류량은 증대하기 때문에 정부에 의한 농약잔류기준의 규제완화도 실시되고 있다. 더욱이나 미국의 벤부루크(Benbrook)에 의한 '수확의 감소와 농약사용량의 증가'라는 보고도 있다. 사망자 38명에 피해자 1만명을 낸 '쇼와뎅꼬오(昭和電工, 일본회사이름) 트립트판[17] 사건(1989)'[18]의 메카니즘도 규명되지 않고, 아

---

17) 필수 아미노산의 하나. 백색 또는 묽은 황색의 결정(結晶). 종종 단백질(蛋白質) 질(質)속에 소량씩 존재하고, 발육·성장·체중유지 등에 필요

18) 세계최초의 유전자 공학제품에 의한 공해(수출)사건이며, 소화전공에게는 니이가따, 미나마따병에 이어 두 번째 대형공해사건으로서, 사망과 피해자의 대부분은 미국인이며, 중노년여성이었다. 통상적 식사만으로도 부족하지 않은 필수아미노산 중의 하나에 불과한 트립토판을 조울증, 불면증, 월경전 긴장, 불안, 스트레스, 행동이상, 비만증, 관절염, 금주, 금연, 보디빌딩 등에 효능이 있다거나 필요하다고 선전하였다. 단, 이러한 '효능'들은 전부 소화전공에서 '발명'한 것이 아니고, 같은 업종의 다른 회사에 의한 것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1984년 미국시장에서 제품의 매상이 급증한 것은 각 사의 격렬한 광고선전공세에 기인하였으며, 미국의 트립토판 시장은 일본기업 6개사 만으로 점유되어 있었다(소화전공의 시장지분이 가장 컸다). 선발 제조업체인 아지노모또(味の素) 등을 추월하여 시장지분확대를 꾀한 기본 전략의 하나는 정제공정의 간략화(불변사용의 절약) 등으로 비용삭감을 추구한 것이었는데, 아지노모

미노산이나 의약품과 달리 불순물을 제거하지 않고 통째로 먹는 유전자 조작작물에서는 예기치 않은 건강영향에 대해서도 불안하고 ‘예방원칙’을 중시하는 유럽각국에서는 비판이 강하다. 리스크(Risk)사회에서의 제반문제(과학과 정치, 대항적 과학, 리스크 평가와 예방원칙 등)는 핵, 화학, GMO 등에 공통되는 중요한 과제인 것이다.

참고 문헌[19]

「환경과 반차별」에 작년 한해 4번의 발행 및 24건의 소개 글 중 14건이 非戰과 관련된 글이었다.

9. 11 이후의 ‘국가테러 국면’이 1년 4개월간 줄곧 진행되는 동안은, 우리 발행동인에게 미국이라는 나라의 과거와 현재, 미래까지도 새롭게 되새겨볼 수 있었다. 더불어, 이 인식을 딛고 전쟁, 국가 등에 대해서도……

이러한 우리의 공감은, 결국 앞으로도 계속되고, 계속될 수밖에 없는 이 ‘더러운 국면’에 대해 우리의 정체성의 중요한 하나로서, 非戰을 전면에 내걸고 맞서겠다는 우리의 다짐이기도 하다.

또 다른 세상은 정말! 가능하다. 전쟁도 군대도 없는 세계는……, 우리 주변의 친구들과 꼭! 그 길을 함께 가고 싶다.

– 빵돌이 –

또는 1kg에 2만엔, 소화전공은 5천엔에 판매하였다. 이 문제에서 기업책임 뿐 아니라, 행정책임 즉 기업의 요청에 영합하여 안이하게 유전공학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 것 등이 추궁되었으며, 첨단기술의 문제점도 날카롭게 제기되었다. 기술의 영향 중에 해명되지 않은 부분, 확실하지 않은 부분이 많고, 이 사건에서도 ‘예기치 않은 불순물’이 큰 원인이 되었듯이 ‘생산력의 질’의 문제이며 전문가의 환경책임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다.(『환경정의를 위하여(창작과 비평사, 1996)』 48 ~49p 요약 인용)

19) 생략. 필요한 경우 홈페이지(http://cafe.daum.net/anarchism) 자료실 참고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노무현의 당선으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도 명실공히 한 단계 높아진 자본주의(유럽의 사민주의(?))로 나아가기 위한 시발점에 선 것 같다. 이전에는 말상대가 되지 않아 주먹다툼만 있었지만 이제는 우리 민중의 소리를 어느 정도 전달할 수 있을 정도로 지배엘리트와의 간격은 좁아질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낙관만 해서는 안 될 것이며 진짜 이제부터다 !! 답답하기 그지없는, 말도 안 되던 지루한 싸움에서 적어도 말이 되는 싸움으로 옮겨 갈 준비를 해야 할 시점에서 우리의 작업은 더욱 어려워지겠지만, 무력감을 느꼈던 과거투쟁과 비교하여 지금은 좀 나아진 상황이라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 등대 2 –

벽에 걸린 가족사진이 부담스럽다. 내 의식이 자유롭지 않다. 뭐가 뭔지 모르는 얼떨떨한 돌잼이 아가, 행복하게 웃고 있는 엄마, 그도 저도 아닌 무뚝뚝한 아빠. 새끼를 치는, 그런 단순한 번식의 과정이 결혼이나 가족이라는 제도의 틀 안에서만 바람직한 것이 되고, 돌이 되면 가족사진을 박는다. 마치 계수나무 아래서 언제고 방아를 찧는 달나라 토끼처럼 (어휴, 힘들어. 우리 좀 쉬면 안 될까. 안돼, 우리는 계수나무 아래 달나라 토끼니까).

떨어지는 꿈을 자주 꾸던 시절에는 제도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제도로부터의 자율적 의식이나 거리를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삶의 자연과 거기에서 안 보이는 관습적, 제도적 의식을 떼어내기는, 여전히 어렵다.

– 도라지 –

우리는 20세기를 전쟁으로 보냈다. 21세기도 또 전쟁으로 시작했다. 환경은 망가지고 빈부격차는 더욱 커지는데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무엇인가?

우리는 아나키즘에서 활로를 찾기 위해서 이제까지 외국의 아나키즘 운동의 사례들을 소개했다. 앞으로도 한동안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갈 길을 모색하겠다.

작년 12월 막바지에 일본에서 『폭력론 노트』를 보내왔다. 무까이 꼬오 선생이 32년 전에 쓴 동명의 글을 전면개작한 것이다. 띄엄띄엄 읽어보면서 하루 빨리 이것을 번역해서 친구들에게 전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편집동인들도 모두 같은 뜻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이 어떠한 형태로 될지 아직 정하지 못했다. 간편한 방법으로 여러 친구들이 볼 수 있게 하겠다. 기대하시기 바란다.

– (ㅎ) –

소통

「환경과 反차별」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형식과 내용에 관계없이, 아래의 연락처 게시판에 메모를 기다립니다!!

응원

「환경과 反차별」 구독료나 응원금을 내고 싶으신 분은, 아래의 계좌를 이용하십시오!!
조흥은행 : 325-04-598461(이동근)

알림

1. 그간 발행된「환경과 반차별」 1, 2, 3, 4호는 http://cafe.daum.net/anarchism의 자료실에서 볼 수 있습니다.
2. 『폭력론 노트』와 더불어, 아나키즘을 소개하는 소책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완성되면, 둘 다 자료실에 올려두겠습니다. 더불어, 앞으로 우편물 발송은 가능한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상계동 모임 발행 동인 刊

- 환경과 反차별 소책자 No. 5.
- 펴냄 : 2003년 1월 17일(금)
- 연락처 : http://cafe.daum.net/anarchism
- 판매 : 1.000원
- 우편 발송 가능 : 2권 이상. 우편 비용 추가